

평화·인권·통일의 광주

민족통일대축전은 제2의 6·15 선언

‘5월 정신’ 평화통일 동력으로

1980년 5월 광주에서 울려 퍼졌던 민주화의 함성은 이제 통일을 갈망하는 목소리로 바뀌었다. 7천만 남북 동포는 오는 14일부터 3박 4일 동안 광주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발표 6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한데 모은다.

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점이 북한측의 구미를 당겼다. 남북위가 광주를 방문하는 북측 대표단에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도 광주에서 열리는 축전의 의의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며,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는 민족 통일로 가는 초석>=26년 전 ‘그날’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울려 퍼졌던 ‘민주화의 함성’은 이제 민족의 소원인 평화통일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5월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통일을 이뤄내야 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참여형 통일모델 구축

이번 축전을 통해 광주의 이미지를 ‘평화통일의 도시’로 승화시키자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열린 ‘5·18광주민주화운동 제26주년 기념행사’는 ‘오월에서 통일로’라는 주제로 치러졌으며,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민주·인권·예향의 도시로 알려진 광주를 ‘평화통일의 도시’로 자리매김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낙청 상임대표는 지난 2일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위원회 결성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한반도식 통일’은 모든 사람들이 폭넓게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방식”이라며 “광주에서 열린 축전은 이 같은 과정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jhim@kwangju.co.kr

경직된 남북관계 해소 돌파구

5·18 전국화에도 큰 기여

<왜 광주인가?>=지난 2001년부터 치러진 축전은 지금까지 서울과 평양, 인천, 금강산 등에서 열렸다. 남북한 지방 도시 중에서는 광주가 처음으로 축전의 개최지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 남측위는 축전에 특히 일반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했다. 축전 기간을 전후해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6·15 통일가족 필드벨(10일 동강대 체육관) ▲통일 사진전(12~18일 금남로) ▲환영단 주먹밥 나눔행사(15일 금남로) ▲남북어린이 하나 되기 ‘아름다운 장터’(17일 민주의 종)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남측위는 또 이번 축전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전국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

與 비대위원장에 김근태의원

“위원 15인 이내 구성…내년초까지 활동”

열린우리당은 8일 과도제헌 비상대책위원회에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비대위원장도 사상 최대 규모인 15인 가량으로 구성키로 하고 오는 9일 인선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비대위원장은 예상대로 김근태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구성을 위한 ‘8인 인선위’ 이윤희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이번 비대위는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 버금가는 정당 사상 초유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비대위원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15인 이내로 구성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윤희 위원장은 특히 “김근태 전 최고위원이 유력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회의에서는 다른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해 김근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것을 시사했다.

비대위는 상임위원 7명과 비상임 위원 8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대위의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구 성격을 띠고 있어 사실상 기존의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이어갈 전망이다.

비대위원회에는 주로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포진하고 장관을 지낸 재선의원과 여성의원 일부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는 당연직 상임위원을 맡게 된다.

비대위는 중요 사항 결정을 상임위원과 비상임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15인 협의체’가 구성돼 의결토록 할 방침이다. 비대위의 활동기간은 내년 1·4 분기까지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위원회 첫 회의가 열려 이윤희 위원장 등 참석 위원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광뉴스

여야 호남 의원들 “함께 가자”

물밑 접촉 활발…‘민주세력 연합’ 정계개편 불 지피기

정계개편론이 활발하고 있는 정치권에 호남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일부 호남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향후 정계개편과 관련해 ‘함께 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효석 의원은 최근 열린우리당 호남 출신 수도권 의원들과의 수차례 접촉 결과, 정계개편과 관련해 상당 부분의 견해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

들과의 회동도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 과정에서 호남출신 여야 의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 같은 호남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은 예상했던 수순이라는 반응과 함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 “예상했던 수순” 비상한 관심

김 의원은 호남 출신 여당 의원들이 ‘호남과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함께 가는 방향을 여야를 떠나 심각하게 논의해 보자’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앞으로 수시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접촉한 호남 출신 여당 의원들은 현재의 열린우리당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향후 정계개편에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며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의견을 모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이날 광주지역 의원들은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보니 그동안의 의정활동이 지역보다는 중앙에 치중된 점이 없지 않으며 앞으로 정국 상황 대처도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형일, 김태홍 의원 등은 이달 중순 이후 여야 호남지역 의원들과의 회동을 통해 향후 정계개편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형일 의원은 “여야를 떠나 호남 출신 의원들의 모임을 조만간 가질 계획”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모임은 소규모로 이뤄질 것이며 꼭 정계개편을 위한 모임이라기 보다는 향후 정국을 논의하는 형식의 자리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조만간 여야 원로는 물론 여야 중진

즉 여당에서 구주류로 분류되며 중도 성향을 보여 왔던 호남 국회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사실상 당내의 강경 개혁파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민주당 등과 함께 ‘민주세력 대연합’을 토대로 하는 정계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근태 의원의 비상대책위원회의 당내 노선 갈등 및 정계개편의 회오리에 휩쓸려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반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근태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민주세력 대연합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은 정계개편 구조상 사실상 예견된 측면이 크다”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움직인다면 정계개편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당분간 단일지도체제 유지

민주당 지도체제가 당분간 한화갑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지도체제로 유지될 전망이다.

한대표 대법 판결 전까지

지방선거 선전했다 자평

8일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2~3차례의 의원 간 담화를 가진 결과 민주당 지도체제는 한화갑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 현재의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상황에서 지도체제 개편 문제로 내부 분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교체 등의 변수 등을 감안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이 조기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까지 민주당은 한화갑 대표의 단일 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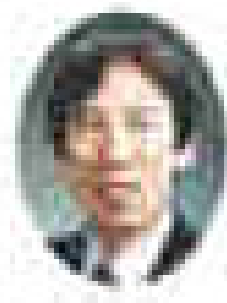
이낙연 의원은 “그동안의 의원 간담회에서는 지도체제 문제로

정계개편과 관련한 민주당의 진로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며 “지도체제 문제는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한화갑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정계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효석 의원은 “민주당은 일단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체제 개편은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지도체제 개편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상쾌한 아침 편안한 잠
폭신평신향한 “수맥돌침대”
몸이 찌뿌둥 할 때! 미국 F.D.A승인.



수맥돌침대 대표

온나노 특허 “수맥돌침대”
원목가구 친한길 제품



세계 대회 5차례 금메달 수상
미국, 독일, 스위스, 필리핀 등 국수산업
www.gunhac.com